



이번 주부터 블로그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글과 다르게 왜 갑자기 존댓말을 쓰냐고 물으신다면, 갑자기 각 잡고 글 쓰려니 어색해서라고 답하겠습니다.

급발진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블로그를 좀 더 제대로 운영해 보고픈 욕심이 있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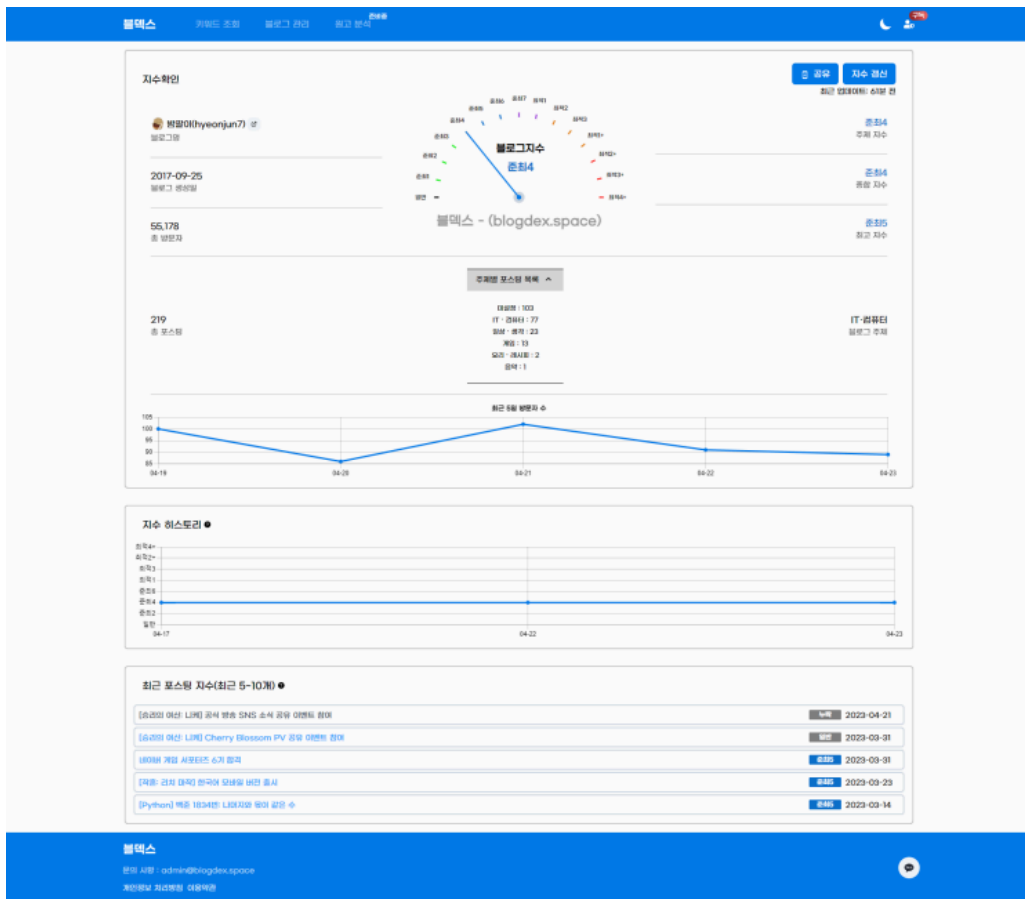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나만 보다가 가끔 남도 보는 일기처럼 글을 썼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글을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다짐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번엔 최대한 오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다는 거냐?

어제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을 관련 사이트 3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 블덱스



2023-04-23 기준 블덱스에서 확인한 블로그 지수 현황

블덱스(링크)는 무료로 블로그 및 포스팅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따로 가이드 문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용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로그인해서 블로그 주소 입력하고 지수 확인하면 끝.

조금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블로그의 최근 포스팅 지수를 확인해 보니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내용이 없다시피한 게임 이벤트 참여 글 두 개 중 하나는 누락, 하나는 최저 등급인 일반이 나왔고, 평소처럼 작성한 글 세 개는 블로그 지수와 엇비슷한 등급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꾸준히 양질의 글을 포스팅하면 블로그 및 포스팅 지수가 높아지는 듯합니다.

이 사이트는 주별별 포스팅 목록을 보며 통일성 있게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 블로그 지수와 최근 포스팅 지수를 보며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데 쓸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꾸준히 한 주제로 통일성 있게 글 쓰는 게 쉽지 않아서, IT·컴퓨터를 중심으로 서너 주제(일상·생각, 요리·레시피, 만화·애니, 게임, 상품리뷰 등)를 잡고 그 안에서 글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 ▶ 키워드마스터

황금 키워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키워드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월, 년간

검색량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검색량에  
비해 문서수가 극히 저조한 키워드를 말함

황금키워드의 정의는 저정도이지만 진정한  
황금키워드가 되려면 추가되어야 될  
중요한 조건이 두가지 더 있습니다.

첫번째는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의  
블로그 지수가 높지않아야 됩니다.

두번째는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는 발행된 문서의  
발행일이 최신의 글이 아니어야 됩니다.

<https://blog.naver.com/quf02071227/222432835585>

사용자는 검색했을 때 나온 문서 중 무언가를 읽을 테니, 대략적으로 각 문서는 검색량을 문서 수로 나눈 만큼의 조회 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는 상위 노출된 문서만 읽다 보니, 각 문서에 조회수가 고르게 배분되지는 않을 테고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검색량에 비해 문서 수가 "극히" 저조하다면 황금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왜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의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아야 하고,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는 발행된 문서의 발행일이 최신의 글이 아니어야 할까요? 이 또한 뇌피셜이지만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내 블로그가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할 테니 이들의 블로그 지수는 낮아야 할 것이고, 비슷한 글 중에서는 최신의 글이 좀 더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는 발행된 문서의 발행일은 오래된 편이 좋겠지요.

키워드마스터([링크](#))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황금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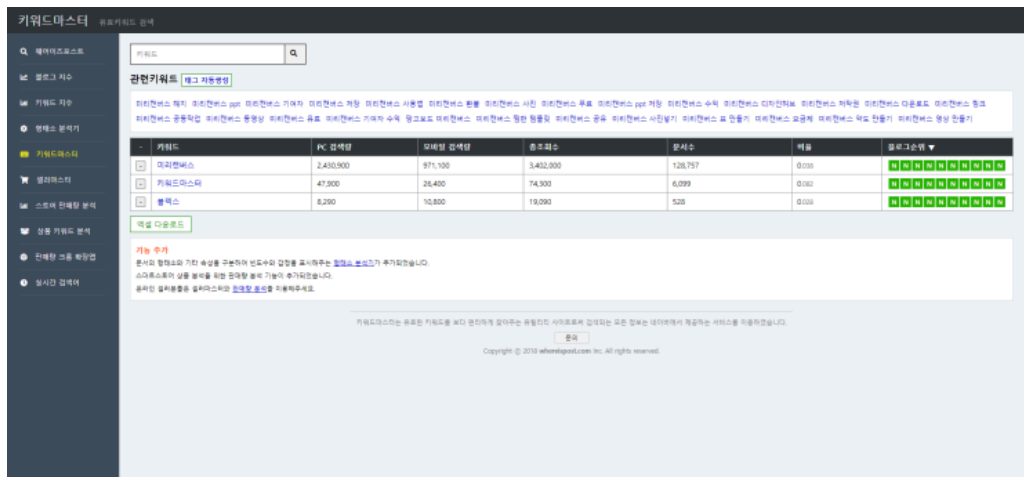
키워드마스터는 유효한 키워드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주는 유틸리티 사이트로써 검색되는 모든 정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https://whereispost.com/>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키워드가 아마도 황금 키워드와 같은 말이겠지요.

사이트에 적힌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네이버 오픈 API를 이용해 만든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태그로 사용하기 좋은 관련키워드와 키워드별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총 조회수, 문서 수, 문서 수를 총 조회수로 나눈 비율, 블로그 순위 상위 10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마스터에 이번에 소개한 세 개의 사이트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 재미있게도 전부 비율이 10% 이내로 낮게 나왔습니다.

황금 키워드 세 개를 사용한 이 포스팅은 과연 높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리캔버스([링크](#))는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블로그 섬네일 이미지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리 섬네일을 만들어서 포스팅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대형 블로거의 글에는 대부분 섬네일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섬네일이 포함된 글은 다른 글보다 사용자에게 매력적으로 노출된다.
2. 섬네일이 포함된 글은 이미지 검색에 노출되어 이미지 검색 사용자에게 읽힐 가능성이 높다.

로고/타이틀 기능인데, 텍스트 수정이 가능해 섬네일 만들 때 쓰기 좋습니다.



미리캔버스 섬네일 제작 화면

또한 관련 문서(링크)를 확인해 보니, 섬네일에 왕관 표시가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나 워터마크 표시가 있는 콘텐츠, 그리고 기타 일부 콘텐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부담 없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글에 쓰인 섬네일 이미지가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섬네일입니다.

이 글 맨 위에 있는 섬네일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20분가량 걸리는 우마무스에 육성 한 판 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블로그 이름이나 별명으로 워터마크도 넣어봐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터디에서 서로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관련하여 보기 좋은 영상과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추후 정리하여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끝!

+

섬네일이 외래어 표기법상 맞는 표현이라서 이 글에는 섬네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썸네일이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 앞으로는 섬네일과 썸네일을 혼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스터디, #블로그스터디, #학습, #기록, #블덱스, #블로그지수확인, #블로그지수, #블덱스누락, #미리캔버스사용법, #미리캔버스무료, #미리캔버스사진, #미리캔버스저장, #미리캔버스다운로드, #미리캔버스링크, #네이버키워드마스터, #키워드마스터블로그지수, #키워드마스터, #미리캔버스, #키워드마스터사용법, #키워드마스터비율, #섬네일, #썸네일